

# 2026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6.4.28.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9/10	5	1	15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국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5	3	-	3	11	-	11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 참고	반론	합계
건수	11	-	-	11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b>&lt;안전공업 참가 관련 보도&gt;</b> 현장 상황과 화재 원인 분석, 유가족들의 입장까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보도를 했는데 차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도를 부탁함	안전공업 철거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상황 및 희생자 추모식 등 지속 보도와 함께 안전공업 제2공장에 대한 노동당국의 긴급 근로감독 결과 등을 지속 보도함 <26. 4~5월 조치>	'26.3월
보도	<b>&lt;후보자 토론회 관련&gt;</b> 후보자가 정책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고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전의 공약을 이행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람	후보자 주도권 가운데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약/정책 관련으로 하고, 후보자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역량 검증 시간이 되도록 제작 방송함 <26. 4월 조치>	'26.3월
교양	<b>&lt;유튜브 소개 코너 관련&gt;</b> 3월 26일 <오늘M>에서 유튜브 스포츠 영상을 소개해 주는 코너를 봤는데 영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궁금하고 흐름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음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5개의 영상을 선정. 각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더 짧게 분배해 보다 속도감 있게 코너를 진행함. <26. 4월 조치>	'26.3월
보도	<b>&lt;교육감 선거 관련 보도&gt;</b>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에 비해 묻히는 편인데 후보들의 난립속에 정책 등에 무관심하면 안되고 깡깡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짚어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 제도의 문제인데 정당 공천도 없고 막막하다는 생각들.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신경써주길 바람.	교육감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선택2026, 지역 일꾼은?'에 이어 주요 교육 현안별 후보자간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기획보도 '유권자의 힘으로'를 보도함. <26. 4~5월 조치>	'26.4월
보도	<b>&lt;카카오톡 뉴스QR&gt;</b> 요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카카오톡 뉴스QR로 접속하면 가장 최신 뉴스가 2023년 1월 20일자였음. 업데이트가 필요함	그동안 관리가 안 된 카카오톡 대신 대전MBC '다음' 뉴스를 하이퍼링크로 연동 조치함. <26. 4월 조치>	'26.4월
총 건수		5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 <https://tjmbc.co.kr/MinutesOfTheMeeting> )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총 선임기간)
위원장	김 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해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오월드 녹구 관련 보도> 녹구에 대한 허위제보와 딥페이크 시 이미지 확산으로 인해 정보에 혼선이 발생해 많이 안타까웠음.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가려서 보도해 주기를 바람.	시 조작 사진 관련해서는 이번엔 그 위험성을 실감했음.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대응매뉴얼을 준비하겠음	○		
보도	<지방선거 관련 보도> 지방선거 보도를 할 때 정치권 중심의 발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시청자들 입장에서 후보 자체 또는 공약에 대한 검증을 다루는 원칙이 있었으면 함.  선거 보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 바람.	현재 후보자들의 각 선거구를 돌면서 라운드업 개념의 소개 보도를 하고 있음. 향후 상호 후보들 간에 공약을 검증하는 뉴스를 만들려고 함.	○		
보도	<교육감 선거 관련 보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에 비해 묻히는 편인데 후보들의 난립속에 정책 등에 무관심하면 안되고 짝같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짚어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 제도의 문제인데 정당 공천도 없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신경써주기 바람.	교육감 선거는 후보들이 많아서 소개만 해도 분량이 4~5분 정도 소요됨. 향후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요구 사항과 후보들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음	○		
보도	<법원 판결 관련 보도> 법원 판결 보도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해시태그가 단편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되는 점이 아쉬움	단신 보도의 한계로 인해 전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함. 향후 기사 및 해시태그 작성 시 유의하도록 하겠음	○		
보도	<세월호 12주기 관련 보도> 대전현충원에 세월호에서 목숨을 구하다가 희생된 18분이 안장되어 있는데 잊지 않고 보도해 줘서 좋았음. 우리사회가 잊지 않도록 매년 계속해서 취재를 해주기 바람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순직하는 분들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잊지 않고 보도하도록 하겠음	○		
교양	<시시각각 세트 관련> 대전현충원에 세월호에서 목숨을 구하다가 희생된 18분이 안장되어 있는데 잊지 않고 보도해 줘서 좋았음. 우리사회가 잊지 않도록 매년 계속해서 취재를 해주기 바람	현재 뉴스 센터를 개편하면서 <시시각각>을 공개홀 임시세트에서 진행 중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음.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세트에서 진행되니 문제점은 해소될 것 같음.	○		

2026년 4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대중 봐도 꿀잼 이거 봤슈’ 코너> 소개해 주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자체의 시청률 또는 축제 영상을 함께 넣어주면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음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재밌는 화제 영상이나 홍보 영상을 활용해 일주일에 한번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재밌는 정보성 영상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캠페인 관련> 청각 장애인 관련 출입 거부 사례 보도를 보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청각 장애인들의 보호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음	올해 연중캠페인 주제가 <함께 가야 든든합니다>라서 그 취지에 맞을 것 같음. 캠페인 주관부서인 전략기획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		
기타	<카카오톡 뉴스QR> 요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카카오톡 뉴스QR로 접속하면 가장 최신 뉴스가 2023년 1월 20일자였음. 업데이트가 필요함	카카오톡 뉴스QR 관련해서 2023년 방송분까지만 있는 부분은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조치하겠음. 현재 ‘다음 뉴스’ 채널로 QR 코드를 새로 만들어 접속하는 방법으로 준비중에 있음.	○		
기타	<홈페이지 코너 관련> MBC뉴스 ‘정정 및 반론 보도 모음’ 코너에 ‘많이 본 뉴스’와 ‘최신 뉴스’가 함께 있는데 이걸 ‘정정 및 반론 보도’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구분 하는게 필요함	홈페이지 정정 보도 코너와 많이 본 뉴스도 혼동되지 않도록 이격화해서 구분하겠음.	○		
기타 (시청자 불만)	<야구해설 관련> 야구 중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음. 특히 해설. 통계나 기록이 아닌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컨디션! 급어를 받으면 그만큼 공부 하던지 지난경기 복기라도 하던지!	말씀하신 내용은 해설을 비롯한 중계진에 잘 전달하겠음. 앞으로 대전MBC 프로야구 라디오 중계 및 유튜브 중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후 4시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9명)

김옥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회의록 전문

이재우 경영국장

오늘 회의는 아홉 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바쁜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5건입니다. 진행자 불만 2건, 기타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부터 4월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2년 동안 애써주신 김미화 위원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이섬교 위원님, 정성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말씀드렸듯이 지방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려렸는데요. 오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김옥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신 후 이어서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오늘 임기를 마치시는 김미화 위원님, 이섬교 위원님, 정성일 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지만 특히 세 분은 2년 차라서 그런지 내용도

더 좋고 충실히 해 오셨는데 임기가 끝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섬교 위원님과 정성일 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요. 조원희 위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조원희 위원

최근 특정 프로그램보다는 보도를 보았고 큰 화두였던 오월드 늑구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인상적이라고 느낀 건 사건의 전달을 넘어서 라이브한 느낌의 시민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심지어 늑구 맵 같은 것도 나오는 현상을 보면서 보도 내용들에 지역사회 관심이 잘 반영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제보와 딥페이크 AI 이미지 확산으로 인해 정보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포획 이후에 중성화를 하네 마네 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가짜 뉴스하고 싸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 발 빠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서 어떤 정보가 확인된 것이고 또 어떤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인지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이 된다면 의미 있는 보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건 매년 똑같은 형태로 후보 간 공방이나 정치권 중심의 발언 전달이 많은 상태인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내 선택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약이 지역 경제나 일자리, 주거와 같은 생활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공영방송이 치우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보도를 할 때 후보 자체 또는 공약에 대한 검증 기준을 다루는 MBC만의 보도 원칙을 먼저 천명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4월 9일에 <오늘M> '대충 봐도 꿀잼 이거 봤슈?' 코너를 봤는데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대전 세종 충남 관련 유튜브 쇼츠 영상 중 의미 있는 것을 편집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화나 예능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특히 끝부분에 충남 방문 홍보 영상도 같이 삽입시켜 주셨는데 지자체쪽에서는 시정 홍보, 축제 관련된 영상을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넣어주신다면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15일 <오늘M>에서는 '식품 사막의 오아시스 당찬 가게'라고 충남 당진 쪽에서 이동 차량

으로 마트 장을 봐주고 소외된 농촌 지역에 가서 물건을 주문받거나 살 수 있는 홍보 차량을 소개했습니다. 유의미한 사업 같고 장보기 문제를 떠나, 소외되는 농어촌 환경에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장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방영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농어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좋은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3일 <뉴스투데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언어치료 아동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요즘 마음 아픈 친구들이 많은데 아동복지 현장에서 이런 일이 터져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공재활 병원은 운영상 문제가 있고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 국비를 투입시켜야 되느냐 지방세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또한 CCTV가 밝혀질수록 전년도까지 이런 부분이 반복됐다는 것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가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히 치료사가 일을 안 했다고 규정짓기보다는 아동들이 치료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차원에서도 보도를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폭력 등 아동학대는 드러나기 때문에 방임이 제일 큼니다. 방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이 역시도 방임에 노출된 중대한 인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언어 치료 대상 아동들은 직접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극적인 장면이 계속 노출되면 오히려 아동이나 보호자한테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전에 아동의 인권과 관리 감독 차원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동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어른들의 책임감이 더 무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속 보도도 민감성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하고 한 달 동안 좋은 방송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뉴스센터 리뉴얼 하느라 정수진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늑구 관련 이슈로도 발 빠르게 전달해주시느라 보도국에서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 정보 혼선이 많았다는 점에도 김지훈 국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대응과 밀접 취재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4월 20일에 청각 장애인 보조견 관련 출입 거부 사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건 대전MBC가 공익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보호견이 없으면 이동 및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 차원에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22일 보도에서 우창코넥타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 농성하는 걸 봤는데 부도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혹은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 처리를 한 건지 등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더 밀접하게 취재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안전 공업에 대한 철거 소식을 들었는데, 구조적인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화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들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변도시 고속화도로의 통행을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통제한다는 보도를 보고 다음 날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공익 차원에서 더 확실하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보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6월 3일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 방송을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은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대전에 안전공업 화재부터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 보도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 관련해서도 보도뿐만 아니라 리포트, <시시각각>까지 다양하게 우리 지역 문제들을 살펴보려는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안전공업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리포트로 3D 도면을 재구성해서 후속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MBC가 지역의 이슈들을 이후의 과제들까지 함께 고민하며 바라보고 있구나 생각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 관련 보도들을 찾아보다가 홈페이지를 보니 대전MBC 뉴스만 별도의 보도로 빼놔서 관련 내용들을 스크린하기가 좋았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도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살펴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5일 보도에 대전의 맛 3선이 선정된 내용이 있었는데, 2000년도 대전 6미가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편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대전의 대표 음식이 삼계탕이나 돌솥밥이라고 해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빵과 갈국수, 두부두루치기가 대전의 3선으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공감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보니 대전의 맛 3선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이 사랑하는 기존의 음식 8선으로 구즉 도토리묵, 숯골냉면, 대청호 민물고기 등이 더 포함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보도 자료로 나오는 내용들 외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스튜디오가 변화했더라고요. 기존에 딱딱하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편

안하고 자리 배치 등을 세련되게 바꾸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zoom을 했을 때 진행자의 머리가 창문 창살에 걸려서 불편한 부분들이 다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잡았을 때는 거슬린다고 생각 못했는데 크게 당겨 잡았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한 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선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선혜 위원  
<오늘M>이 점점 재밌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콘텐츠 기획자분이 트렌드를 잘 맞추시는 느낌이었고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핫한 이슈들을 모아 재기발랄하게 소개하는 코너 '대충 봐도 꿀잼 이거 봤슈?'가 기획력이 좋다고 느꼈고, 4월 16일에 옛날 다방을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MZ세대들이 옛날 다방 가서 사진 찍고 노는 게 유행이거든요. 저도 최근에 중앙다방을 다녀왔는데 어르신들부터 젊은 세대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이면서 지역 명소이다 보니까 기획이 새롭고 참신해서 좋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법원 판결이 가끔 뉴스데스크에 단신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월 24일 뉴스데스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이라는 제목으로 단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해당 보도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고용노동부 장관실을 찾아가서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원심도 실형이었고 항소심도 실형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범죄 동기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것도 아니고 실제 불 지르는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던 것은 그렇지만 유튜브에 이 뉴스 꼭지를 잘라서 올리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실 #불 이렇게 단편적이고 자극적이게 편집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 의사에 대한 확인이 충분치 않고 지상파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신 보도의 한계가 있겠으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이 꼭 필요할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강희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요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뉴스 QR로 접속을 해 보니 가장 최신 뉴스가 2023년 1월

20일자더라고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MBC뉴스 메인 화면 웹사이트에서 '정정 및 반론 보도 모음' 코너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왼쪽에는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인데 오른쪽에는 그와 전혀 관련 없는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가 함께 뜨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보면 해당 뉴스도 정정 및 반론 보도에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잘 구분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뉴스데스크 기획 보도로 지역별 판세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앵커와 기자의 리포팅 발언에 생각해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는 표현과 계룡시장 선거에서 앵커 발언 중 '이케아 유치 무산을 수습할 후보에게 표심이 향할 전망입니다' 같은 부분들은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접전이 예상된다는 표현들은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데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금산군수 선거 후보자를 소개할 때도 후보자 출마의 변이나 포부보다는 핵심 공약을 간단히 소개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섬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섬교 위원  
뉴스데스크를 자주 보면서 공익적인 방송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있다 보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에 비해 묻히는 편인데 대전MBC에서 교육감 선거 관련 보도를 몇 번 해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현 교육감님이 오래 있다 보니 대적할 만한 분이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후보 난립 속에서 정책 등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점을 더욱 일깨워준 것 같아 교육감 선거 관심도를 높이는 등 시민을 위한 공익성이 보였습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를 안 하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대전MBC가 공익적으로 짚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에서 누구 편을 봤는데요. 시장님의 정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글램핑장을 대전 녹대 사육 옆자리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방송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이 원한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건지 등을 짚어볼 수 있게 공익성과 연결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홈플러스가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언급을 계속 해주시면서 현수막의 불법적인 부분들도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삶이나 지역의 우려에 대한 공익적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깨우칠 수 있게 시청자로서의

눈을 길러주신 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성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지난달 큰 참사가 있었음에도 이번 달에 많은 사고가 이어졌던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서 대전MBC가 언론의 역할을 하며 보도를 이어나가고 취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이런 죽음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안전공업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계속 주목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렸는데 수사 진전 상황을 5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해주신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처음 사고가 나자마자 사측에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로 이어졌고 이것은 인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떤 액션도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수사 진전 상황은 보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족들의 입장은 어떤지 등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충남도 금속 가공 사업장 268개소 긴급 점검이 진행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 제지 공장 추락사고 같은 경우는 첫 단독 보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3년 전 똑같은 사고를 언급하면서 단순히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짚어준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유족과 노조의 입장, 임원 고소 등 여러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취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독 보도부터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취재하는 것이 대전MBC가 지향해 온 저널리즘 정신이 아닌가 싶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보령에서 60대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깔려 사망하고, 대전에서 아파트 외벽 방수 작업 중에 추락 심정지, 대전 공사장과 농지 사망 사고 잇따름, 서산 금속 가공 공장 화재로 20대 노동자 중상 등 끊임없이 산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큰 사고가 굉장히 경각심을 일깨워줬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6년에 산재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과연 OECD 평균 수준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대전 충남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룡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의 매년 학교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번엔 또 다시 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중학교 때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장시간 방치된 이유에 대한 취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사고 발생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 대책을 잘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 교육청이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해서 선별하고 단계별 안전망이 맞춤형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서적 위기 같은 경우는 작년 사고처럼 교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예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월호 12주기가 왔습니다. 대전현충원에는 세월호에서 목숨을 구하다가 희생되신 18분이 안장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잊지 않고 보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잊지 않아야 귀감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대전MBC에서 그분들을 기리는 행사를 취재해서 시청자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단신 보도가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고 참가자들 중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키지 못할 반쪽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하면서 안전공업 사고나 지역의 다양한 안전사고와 참사들을 함께 보도에 넣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점도 좋았습니다.

송전 선로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문제 보도도 보았는데, 지역 주민으로서 당부 드린 점을 계속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제가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노동 인권, 지역 에너지 주권 그리고 대전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교복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들도 많은데 물난리 같은 각종 재해를 사고만 취재할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언론이 감시해줘야 정치권도 잘 행동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의 눈과 목소리가 되어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모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섬교 위원님이 교육감 깜깜이 선거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 선거도 후보자 TV 토론회가 있나요?

김지훈 보도국장

방송 3사가 한 개씩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 위원장

교육감 선거야말로 선거 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정당 공천도 없고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정당하고 연결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어서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 금지 기간이 있어서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방송사에서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판세 분석’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유권자들한테는 후보자들의 공약 분석이나 정보를 주는 토론쪽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접전’ 같은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마치고 대전MBC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순직하는 분들에 대한 취재는 정성일 위원님의 칼럼을 보고 발제를 해서 취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에서 그 부분까지 녹여서 취재를 했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뉴스 QR 관련하여 2023년 방송분까지 있었다는 부분은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채널이 있기 전에 만든 건데 지금 ‘다음 뉴스’ 채널로 QR 코드를 새로 만들어 접속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정정 보도 코너와 많이 본 뉴스도 혼동되지 않도록 이격화해서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월드 늑구 탈출 관련하여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늑구 탈출의 본질은 동물원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우선되어야 했지만 늑구의 서사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좋아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고, 결국에는 오월드는 안전조치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휴장입니다. <시시각각>을 통해서 동물권 문제, 동물원이 단순히 전시하는 게 아니라 Sanctuary(보호구역) 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갈 계획입니다.

AI 조작 사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려고 하다가 모든 언론사들이 그랬듯이 첫날 무심코 받아췄습니다. AI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지상파나 모든 인쇄 매체까지 섭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장난삼아 했겠지만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대응 매뉴얼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하여 말씀 주셨는데, 후보자들의 각 선거구를 돌고 있는 건 라운드업 개념의 소개 보도였습니다.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는 누가 뛰고 있고 지난 선거에서는 어떤 표심이 있었는지 등 정도였고요. 이번 달부터 들어갈 부분은 상호 후보들 간에 공약을 검증하는 뉴스를 만들어볼까 계획 중입니다. 후보A가 본인의 1공약을 말하면 후보B,C는 후보A에 대한 공약을 검증하는 식으로 공약 검증을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후보 소개 쓰고 인터뷰하면 분량이 4~5분 되거든

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요구 사항과 후보들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운드업 정도의 일반적 보도였다면, 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니까 체계적으로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보도에 중점을 뒀서 앞으로의 선거 방송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시각각> 진행자의 화면이 이상한 점 말씀 주셨는데, 현재 뉴스 센터를 개편하느라 <시시각각>을 뉴스 센터에서 진행하지 않고 공개홀 임시 세트에서 진행 중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세트에서 진행될 거니까 그때 다시 봐주시면 문제점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문선혜 위원님의 유튜브 의견 관련해서 30초 안팎인 단신 보도의 한계로 인해 전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화미수 사건이지만 해시태그에 '#방화\_미수'를 적시하는 등의 조치가 없어 방화 사건로 오인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향후 관련 기사 작성 시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최승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오늘M> '대충 봐도 꿀잼 이거 봤슈?'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서울MBC 뉴스투데이를 보면 '지역 토크'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역MBC 뉴스 중 리포터가 괜찮은 뉴스를 모아 아침 7시 20분쯤 전해주는 코너인데 이걸 착안해서 대전MBC 제작진이 만든 코너입니다.

충남 각 지역의 지자체들도 재미있는 화제의 영상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 지자체 홍보 영상을 활용해 일주일 분량을 한 번에 모아서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짧게 리뷰해본 것입니다. 올해부터 선보이는 코너인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재미있는 정보성 영상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M> '오늘도 갑니다'에서 보여준 당진시의 당찬 트럭 코너는 편성국의 막내PD, 아나운서와 인프라국의 막내 카메라 감독 3명이 직접 촬영했는데요. 직접 화제 현장에 다녀와서 그런지 제일 활기찬 코너인 것 같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마트 장보기도 힘들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찬 트럭을 이용해 먹거리 소외 지역을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는 훈훈한 장면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나름 공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충 봐도 꿀잼 이거 봤슈?' 코너의 중앙 다방 같은 경우는 '오늘 쉽터'라는 코너로 리포터가 같이 나가지 않고 영상 위주로 꾸미는 코너입니다. 그동안의 소재를 보면 충남의 대장간, 원동 책방, 테미공원 등 빠른 변화에 지쳐가는 현대인들한테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들을 찾아 소개하는 게 이 코너의 콘셉트이거든요. 앞으로도 지친 현대인들한테 휴식을 줄 수 있는 장면들을 매주 담아 계속해서 좋은 곳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보호견 관련하여 캠페인으로 해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 캠페인은 전략기획실이 주관부서라서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중캠페인 주제가 <함께 가야 든든합니다>라서 취지에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대전역에서 청각장애인 보호견이랑 같이 서 있는 분을 쳐다봤던 기억이 있는데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M>같은 프로에서 TV로 봐도 잔잔하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예고입니다. <오지랴보건설>이 작년엔 시즌 1이 있었는데 시즌 2가 5월 초부터 7월 초 까지 6개 학교 촬영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래퍼 한해 씨가 MC였는데 올해는 MZ 세대에게 인기 있는 댄서 하리무 씨와 저희 남자 아나운서가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8월부터 9월 사이에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또한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제작 지원 작품인 UHD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역전의 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 앞에서 시작한 빵집이라는 뜻과 빵이 그 도시의 문화와 경제를 바꿀 수도 있다 는 뜻으로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생내컷>은 그동안 대전MBC와 MBC충북이 공동으로 제작해서 선보였는데 5월부터는 전주MBC가 합류해서 3개 방송사가 공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작년엔 만든 <애들은 가라> 시리즈가 최근 4월 24일에 한국PD대상에서 지역 정규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 자립형 공동체 학교에서 라디오 음악회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큰 예산 들이지 않으면서 공익성 있는 걸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재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님들께서 떠나시더라도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의 지역 방송에 대한 역할과 애정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시청자 눈높이에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의견은 국장 및 제작진, 기자들과 함께 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4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